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10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병 진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Youth Volunteer Experiences on
the Perception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병 진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정 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병 진

김병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은 희 인

201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청소년 봉사활동	6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16
3. 선행연구 고찰	23
III. 연구 방법	26
1. 연구참여자	26
2. 분석도구	29
3. 자료분석	30

IV. 연구결과	31
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중학생들이 장애인 인식과 수용 태도의 차이.....	31
2.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관련 특성에 따른 중학생들의 장애인 인식과 수용 태도의 차이	33
V. 논의	46
VI. 결론 및 제언	47
1. 결론	47
2. 제언	49
참고문헌	50
부록	54

표 목 차

<표 II-1>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	23
<표 III-1> 자료 수집 현황	26
<표 III-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결측값 제외)	28
<표 III-3> 신뢰도 검증	29
<표 III-4> 항목별 기술통계 분석	30
<표 IV-1> 성별에 따른 비교	31
<표 IV-2> 학년에 따른 비교	32
<표 IV-3>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33
<표 IV-4>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종류에 따른 비교	34
<표 IV-5> 봉사활동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비교	36
<표 IV-6> 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비교	38
<표 IV-7>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비교	40
<표 IV-8> 자원봉사활동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비교	41
<표 IV-9> 지난 1년간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교육 횟수에 따른 비교	43
<표 IV-10>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자원봉사활동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비교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특수학교는 기피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 만에 지역 주민들에게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대가로 새 부지가 나오면 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는 기사를 보고 현 시점에서 어른들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장애인을 보는 시선, 선입견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예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접촉이나 사회적 노출이 결여된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비과학적인 선입견 등으로 균등한 사회 참여 기회를 장애인에게는 제한하고 각종 차별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별 금지법 이행 및 차별 개선 모니터링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정도에서 장애인은 87.8%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비장애인들은 91.4%가 장애인 차별 경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장애인, 비장애인들 모두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편견은 무시와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 각종 사고 및 질병, 약물 남용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구의 증가 등으로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실제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재가 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을 합하여 총 2,668.4천명이며, 출현율은 5.39%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장애의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명은 감소되었으나 연령별 장애 출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60대부터 증가폭이 커지면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계층에서의 장애 출현율이 청·장년층에의 장애 출현율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7). 이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위험에 있어서 장애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자신과 주변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도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니고,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모든 면에서 차이를 가지지 않으며 같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은경, 2005). 즉, 장애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주고 평등하게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 등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요 법률을 재·개정하여 시행하면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왔다(김태성, 2005). 각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은 미래의 주역인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청소년기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형성은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숙경, 2007).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지식이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역할 기대가 크고, 그들에 대한 태도도 호의적이다.(강수균·조홍중, 2003).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아동기나 중·고등학교의 학습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도덕성, 사회적 이해력, 이타성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갖는다. 그중에서도 이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초·중·고등학교시기에 장애인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일반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줄 뿐 만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전보향, 2009). 청소년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아직 미숙하고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이란 완전한 의미의 자원 활동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으로 즉, 봉사 학습의 개념에 더 가깝다(전보향, 2009). 그렇기에 청소년기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워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임인화, 2015).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처음 채택되어 도입된 것은 1995년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1995)에서 제시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근거하고 있다. 이 교육 개혁 방안에서는 우리의 교육이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규격화 된 획일적 입시 위주의 암기 교육과 평가 방법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러한 과정을 거쳐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봉사활동을 학교의 실 수업 일수에서 확보한 시간과 교육과정의 선택 운영 일수에서 별도로 확보하는 시간을 합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01).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장애인과의 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한 바 있으며(김미화, 2010; 김숙경, 2007; 김정배, 2000; 이광호, 2011; 임인화, 2015; 이정민, 2011; 이종남, 1994; 이초희, 2003; 최정희, 2008; 하만두, 2007),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 그 자체가 영향을 주고 또한 직접접촉 봉사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김미화, 2010; 이광호, 2011; 이종남, 1994; 이초희, 2003; 최정희, 2008; 하만두, 2007). 좀 더 자세히 보면 자원봉사활동 유형, 봉사시간, 사전교육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간의 관계를 밝혀져 왔다(김숙경, 2007; 김정배, 2000; 임인화, 2015; 이정민, 2011).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수용 태도를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장애인과의 접촉 및 교육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기 중학생들의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과 장애 수용 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봉사활동 경험 유무와는 상관없이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경험 유무, 봉사활동 종류, 봉사활동 대상자 연령, 봉사활동 동기, 봉사활동 시간, 자원봉사교육 및 교육 횟수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통합 실현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이 일반 중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중학생들의 장애인 인식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성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중학생들의 장애인 인식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관련 특성(경험의 유무, 봉사활동 종류, 대상자 연령, 동기, 시간, 교육의 유무, 교육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청소년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제시된 9세에서 24세를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14세에서 19세의 학생을 말한다.

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 구현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하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중·고등학생이 수행 가능한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목욕시키기, 머리감기기, 식사돕기, 말동무, 함께 운동하기, 장애인과의 산책, 프로그램 진행보조 등)과 간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사무보조, 자료정리, 빨래하기, 청소, 환경 미화, 캠페인 활동 등) 등을 의미한다.

다. 장애수용태도

장애수용태도란 자신의 장애를 자신의 여러 특성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초래 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으며, 장애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수경·곽지영, 2011). 본 연구에서의 ‘장애수용태도’는 일반학생이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해당 지식 없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반대하는 태도인 ‘무조건적 거부’, 교우 관계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친교의 거부’, 장애인과 접촉 시 불안, 긴장 또는 창피한 감정을 느끼는 태도인 ‘접촉 시 긴장’ 등과 관련된 문항을 통해 중학생이 장애를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장애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미신적 선입견을 볼 수 있다(문동팔, 1996). 태도를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태도란 경험의 잔재로서 대상물에 대하여 특수한 양태로 반응하도록 만들고 있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경향이다(차배근, 1992). 본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중·고등학생이 장애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경험학습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양태로 반응하는 것에 관련된 문항을 통해 장애를 인식 및 태도를 수치로 나타낸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봉사활동

가. 청소년 봉사활동의 의의와 목표

1) 청소년 봉사활동의 의의

자원봉사활동은 인성발달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아정체성이 향상되고, 동시에 자기존중감과 유능감, 나아가 타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향상되는 것이다(Scales & Blyth, 1997). 조아미(2005)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교육적 차원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자원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반복적으로 배움으로써 봉사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의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현장 교육적 측면, 자아 실현적 측면, 사회 발전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휘일, 1994). 첫째, 현장 교육적 측면은 봉사활동을 통해 폭넓은 사회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문적 성취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자아 실현적 측면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익히게 되고, 그로서 자아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셋째, 사회 발전적 측면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2001)가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존중의 정신과 태도 형성이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성 개발이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집단과의 접촉으로 서로 잘 이해하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사회성을 갖게 된다. 셋째, 자신감과 지도력 향상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지도력을 길러 준다. 넷째, 공동체 의식 함양이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 준다. 자원봉사활동은 이기주의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구성원들이 협동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준다. 다섯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형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켜준다.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발성, 협동정신, 책임감 같은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여섯째, 보람 있는 여가생활이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값진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찾고, 탈선이나 비행도 예방할 수 있다. 일곱째,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적성과 새로운 기술의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장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 (민은화, 2008).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목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나눔, 협동정신을 기르며, 둘째,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며, 지역사회 발전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다(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3). 따라서 위에서 제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목표를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5개 자원봉사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볼 때, 김정배(2005)는 각각의 활동 영역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째, 일손 돕기 활동 영역은 서로 협력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태도 형성이다. 둘째, 위문활동 영역은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병약자 등을 대상으로 위문하는 활동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형성이다. 셋째, 캠페인활동 영역은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이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도록 한다. 넷째, 자선구호활동 영역은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태도형성이다. 다섯째, 환경시설보전활동 영역은 자발성, 협동정신, 책임감과 같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태도 형성이다(민은화, 2008).

나. 청소년 봉사활동의 특징과 필요성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자원봉사 한 분야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상위 개념인 자원봉사의 궁극적인 정신, 목표, 철학, 이념 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봉사자인 청소년의 특성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원봉사는 크게 세 가지로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자원봉사를 ‘학습’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점이다. 이 관점은 문제해결의 방법을 봉사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봉사활동에 의한 실제 사회현실

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도덕적 가치의 경험까지 통합적으로 학습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측면은 자원봉사를 ‘활동의 방법’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점이다. 이는 봉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봉사활동 경험을 스스로 작성하고 평가하며, 나아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세 번째 측면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의 한 요소로서, 즉 생활구조로서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생활주체자인 청소년이 가치 및 행위방식이 이타적이며 적극적인 생활구조로 될 때, 즉, 봉사활동이 쉽게 가능케 할 수 있는 생활구조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임인화, 2015).

봉사학습의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개인의 지적발전을 도와준다. 둘째, 청소년 개인의 기본 기술의 습득을 도와준다. 셋째, 도덕과 윤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넷째,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즉 봉사학습은 기존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습지향적인 결과를 향유케 한다(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2).

청소년 봉사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달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볼 때 봉사학습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 학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전보향, 2009).

(가)교육적 목적으로 지도되는 체험활동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안내·조정되는 활동이다. 학교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개개인의 100% 자유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안내, 지도, 조정, 평가되는 활동이다.

(나)학교계획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학교계획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바른 성장에 도움을 주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발달단계를 고려한 활동안내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 신체적·지적·사회적·도덕적 측면 등에서 현저하게 다른 발달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 따라 봉사활동의 지도에 초점과 활동영역, 내용 등이 달라져야 한다.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소년기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통해 점차 성숙한 지역 사회에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측면에서 인격적·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주며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청소년 발달과정의 수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양홍식, 2005).

청소년은 직업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 시기이고, 봉사활동은 청소년이 직접 자기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 점차 가질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청소년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이념 발달과 지역사회와 국민의 일부로서 청소년 봉사활동은 청소년 자신이 직접 속한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발달시키고 사회의 일부로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양홍식, 2005).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가치관·도덕성·이상향에 대한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청소년기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그 가치 체계에 맞추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양홍식,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과 함께 가정, 학교,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학교 수업이 입시 위주로 되어 있고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을 띠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이나 개인중심의 집단으로 분화되어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대감이 부족하다(차경수, 2000).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되는 자신의 미래상에 대한 준비·사회적 행동발달·사회이념의 형성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처해진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현실에서 봉사활동은 사회참여의 경험을 확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발달기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의미가 강조된 봉사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경우 미국 교육개혁봉사활동연합은 봉사학습에 대하여 ‘봉사학습은 청소년의 학습 및 인성 개발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고안된 교수-학습 방법을 말한다(Wade & Saxe, 1996). 이러한 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일반 지역사회의 구체적 삶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봉사학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사고하고 말하고 작문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한정된 교실 수업 상황에서 벗어나 학습 경험을 실세계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는 타인 보호의식의 발달을 형성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양홍식, 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학습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의 장소를 학교에서 사회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청소년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지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임인화, 2015). 즉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찾아 자아 정체성의 발견과 직업 및 기능, 사회적 책임감, 기획 조정하는 자율성, 당면한 문제해결능력, 봉사활동 관련 사회문제의 비판적 분석능력, 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의사 표현능력 등을 획득할 수 있다(양홍식, 2005). 학교교육차원에서 봉사활동 지도교사가 멘토나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학교의 교사와 학생과의 원활한 관계 정립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어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사회와 학교와의 관계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됨으로써 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도 있다. 지역사회는 봉사활동의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이 되므로 봉사활동 참가 학생의 새로운 생각과 열의 등을 통하여 활기를 얻는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유용한 시민으로 인식하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된다(양홍식, 2005). 청소년 자원 봉사활동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지역사회 속에서 가지게 하므로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발달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장·단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임상열, 2007).

봉사활동의 성찰은 봉사학습에서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봉사활동 중 경험한 사건, 자신, 봉사 대상, 프로그램, 관련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반성하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Claus & Ogden, 2001).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자신이 수행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바람직한 관계, 나아가 자신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삶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체득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및 사회 개선의식 등의 시민성을 체득하게 된다(은지용, 2002).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과거에는 인간애를 기본으로 자선, 또는 구호중심의 전통적 자원봉사 또는 자선활동 행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김영호, 1991). 우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 현대사회에 와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각종 비복지 요소들로 인해 사회문제가 증가하자 문제해결 및 예방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사적 조직에서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활성화가 요구되고, 국민 또한 국가책임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사회복지욕구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이들을 기대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실정인바,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복지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강화하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1960년대 이후 가파르게 경제가 발달하면서 지역 간·산업 간의 인구이동이 조성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생활의식의 변화가 사회 환경을 나빠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의 경향은 인간의 건전 육성과 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가정의 생활보장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고, 핵가족화의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변순옥, 2001). 공동체 의식, 연대의식이 결여된 사회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인간성의 상실에 따른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기술의 발달로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 여가의 건전한 활동방안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한 분야이다(변순옥, 2001).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사회계층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여가활동이 될 수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복지 사회를 향한 시민 참여의 한 방식으로 활동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계층의 다각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자원봉사는 점차 거대화, 정치화, 관료화되어 가는 정부 또는 민간기업의 문제를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 3의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 전문화의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볼 수 있다.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관계는 지도상의 책임과 역할을 달리하고 있으나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갖는 것이므로 보다 복잡한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 사회사업가가 부족한 현재의 실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과정들을 처리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변순옥, 2001).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측면으로도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지닌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7). 첫째, 자원봉사자 자신의 인적 능력을 활용하게 되어 생활의 의의나 보람을 느끼게 된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여가를 현명하게 이용하여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자원봉사자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의식을 고취하는 과정에서 봉사자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어 자신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게 한다. 넷째,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간의 연대감을 갖게 되어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국민의식을 갖게 한다. 여섯째, 사회문제에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사회나 국가에 대해 긍정적 소신을 갖게 된다. 일곱째, 사회복지 시설·단체·지역사회 등 현행의 복지체계 변화의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덟째, 대규모 국내외 행사 등에서 대회진행은 물론 통역·안내·경호·경비·의료봉사 등의 자

자원봉사활동은 건전한 국민의식 또는 애국심을 가꿀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자원봉사자들은 협의에 관점에서 보면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소외된 계층, 즉 장애인·노인·환자·어린이의 삶에 직접 도우는 일에서 광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도덕성 회복, 기타 공익을 위한 사회 개혁운동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특수교육적 의의

1)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의 의의와 동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건강상, 생활상 그리고 정서상의 문제와 불편을 갖게 되고 그들의 기능도 또한 점차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법제정 및 지원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다양한 인력 자원의 제공을 통해 그 기능을 유지 및 개선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봉사자의 활동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에서 봉사자의 역할은 다방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수의 봉사자들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데 전문가의 보조자 혹은 협조자 및 직접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인 도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전달자의 역할은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둘째, 장애인들이 교육관련 서비스 등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가족,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나타나는 다수의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표현하였을 때 어색하지 않게 그들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게 하는 상담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비록 봉사자로서의 상담가 역할은 전문적일 수는 없지만 가장 일선에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지지와 함께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자들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봉사자들은 장애인들을 근접한 거리에서 도우면서 그들의 욕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시 파악한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입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만들 순 없지만, 전문가들의 기획과 실행에 장애인들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줄이

고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비장애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은 봉사자들이 가장 근거리에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직접적이지 않은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최정희, 2008).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봉사자들의 사회교육가로서의 역할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위의 역할들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숙경, 2007). 이 외에도 장애인 복지에서 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직접적으로 돕는 일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 장애의 종류에 따라, 개인적인 일에서 가족이나 집단을 돕는 일 등 인원에 따라 시설이나 기관·가정·지역사회 등의 장소에 따라 돕는 일이나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다(이순선, 2000).

동기에 대해서 행동을 시작하고 방향을 짓고 행동의 강도와 지속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언급하였고,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도록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조휘일, 1998). 자원봉사자들이 왜 봉사활동에 참여하느냐 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밝히는 시도는 중요한데, 이러한 연구 및 탐색을 하는 기본적인 가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강부진, 2011). 첫째,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활동에서 만족될 수 있는 요구(need)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이 그들이 가진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그들은 충족감이나 보상을 받았다는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만약에 한 자원봉사자가 현재 봉사활동에서 나름대로 충족감이나 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는 그에게 배정된 현재 업무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다. 넷째, 따라서 봉사자들이 실제 업무의 상황에서 충족감이나 보상의 감정 등이 만족이 되는 자원봉사자는 잘 부합되지 못한 자원봉사자보다 빨리 자원봉사활동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등이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사회적 책임이나 이타주의에서 차츰 여가활용, 자아실현 및 자기 계발, 새로운 대인관계 확보 및 유지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김동배, 2004). 자원봉사활동은 장애인과 이웃이 되어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는 활동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대상인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활동이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협동의 활동이다(강부진, 2011).

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청소년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거나 사회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신적, 심리적 성숙과 발달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

사활동의 체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연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양성,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질을 함양토록 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책임자로서 복지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변혁의 구심점이 되도록 성장하게 될 것이다.

먼저 교육적 가치를 conrad & hedin(1989)이 제시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영역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적 성장과 발달, 지적 성장과 발달, 사회적 성장과 발달이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김은영, 2001).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보향, 2009). 개인적 성장과 발달에는 자아 존중감, 개인적 유능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과 도덕성 발달, 다양한 봉사활동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관심의 탐색, 새로운 도전과 위험의 감수, 가치와 신념의 변화와 강화, 책임감, 자기행동의 결과에 대한 수용을 포함하였다. 지적성장과 발달에는 기본적인 학업기술(생각의 표현, 읽기, 계산하기), 높은 수준의 사고기술(편견 없는 태도,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봉사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과 기술,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기술(관찰, 질문, 지식의 적용), 지식의 습득과 보유에 대한 동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꼭 알아야 할 통찰력, 판단 및 이해를 포함하였다.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는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 정치적 유능성, 민주시민의 참여정신 함양, 자원봉사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지식과 탐색, 다양한 배경과 삶의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평가가 포함된다(최은희, 2001). 또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과 동시에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체험하여 자신의 자아형성에 보탬이 되게 하고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형성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전보향, 2009). 다양한 학생봉사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전보향, 2009). 첫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갖춘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취미향상을 도모하고 여가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취미의 신장과 여가를 쓸모 있게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공동체 삶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 현대사회에서 자칫 개인이기주의로 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은 자발성과 협동성, 책임감을 가르쳐 줌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 본인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기술을 터득할 수 있게 하고 이미 보유한 기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적성을 찾아내어 육성해

나간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새로운 사물과 일에 대한 흥미가 지적인 활동과 교육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지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가진 시대가 필요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은 특수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동시에 그 외의 타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소양을 함께 지닌 인간, 즉 전인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전보향, 2009). 여섯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단 내에서 자기 발전 혹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하며, 학습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의 만족한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불건전한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정애라, 2006).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판단과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1) 장애인 인식에 대한 이론

(가)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이론

(1) 상품이론(Commodity Theory)

현대 사회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 지식 등을 통해, 각자의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김태성, 2005). 가치의 창출과 재창출을 통한 개인의 생산은 시장경제에서의 그 개인의 경쟁력이 성장하고 나아가 그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생산력은 대개의 경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거나 능력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현대사회는 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됨으로 자연 장애인에 대한 상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장애인은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는 이론이다(이진숙, 2002).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서 장애인들은 점점 소외되게 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들은 ‘최후의 고용, 최초의 해고’라는 노동시장의 불문율에 적용된다(이학범, 2000). 경제 상태가 좋을 때에 비로소 고용이 가능하고 나쁠 때에는 우선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이익섭, 1990).

(2) 편견이론(Prejudice Theory)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비과학적인 선입견으로 보는 편견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김용득·유동철, 2001). 아직 지역사회에선 장애인을 쉽게 생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우리와 다른 별종으로 다루며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편견을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감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이성으로서는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이광호, 2011). 외적으로는 장애인의 취업을 찬성하면서 실제적으로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과 같은 것이다(민은식, 1990).

(3) 분리이론 (Isolation Theory)

장애인들이 일반사회와 접촉이 적으면 적을수록, 장애인 본인이 참여할 수 없는 주변 일들을 모를수록 고통이 적기 때문에 장애인과 사회가 상호간에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분리의 결정은 장애인에 의해서 먼저 취해지거나, 사회에 의해서 먼저 행해질 수도 있다(김용득·유동철, 2001). 또한 사회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현대적인 조건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져 전반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먼저 사회가 장애인으로부터의 분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익섭, 1990).

(4) 재활이론(Rehabilitation Theory)

이는 치료와 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견해는 장애인을 일단 비정상 상태로 치료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치료, 교정 이후 사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익섭, 1990).

(5) 사회정책 부재이론

국가 정책은 직면한 사회문제를 풀어 갈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어떤 문제는 의도적으로 정책적 수립을 보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다(이영옥, 2005). 장애인 복지가 타 복지 영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낮아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이학범, 2000). 이는 장애인 문제를 파악하였음에도 아무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장애인의 부분적이고 부정적인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이를 일반화시키고 있다(이광호, 2011).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만 다를 뿐, 신체적·정신적 기능손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의 존재를 낮은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이론이 유사하다(강석주, 2008).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특성상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기준한 가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열등한 지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장애인식 이론은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나 이상의 이론은 장애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장애를 사회에서 소외시키거나 배제·분리시키면서 장애인의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이광호, 2011). 따라서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실천 이념은 장애인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기존의 이론에 반하여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장애인의 존재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다(강영실, 2003).

(나) 긍정적 인식에 대한 이론

(1)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

이 이론은 복지제도 발달이 산업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귀결이며, 따라서 모든 산업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자체의 복지제도를 수립해 나가게 된다는 이론이다(이진숙, 2002).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복지수준은 각 국가의 경제 수준에 맞게 수립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 수준도 한국의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곧 발전적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이학범, 2000). 다만 이 이론에서는 경제적 이외의 요소, 예를 들면 정치적 요소를 빠뜨린 점은 있지만 장애인 복지제도와 경제력과의 상관관계, 복지의 기능적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이 이론은 한 국가의 복지가 인접 국가 혹은 관계가 긴밀한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국가의 모범적 복지제도가 주변 국가들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이학범, 2000). 현재는 국제화의 시대이기 만큼, 국제외교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라의 장애인의 복지의 장점과 약점이 쉽게 노출될 소지가 많은 분야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있고,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의 세계대회인 퍼럴림픽도 개최한 나라라는 점에서 더 이상 장애인 복지에 낙후된 점을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고, UN을 비롯한 세계 국제기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대적 환경이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바로 확산이론이다.

2) 장애인 인식 발전과정

단지 장애인이라는 까닭만으로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부터 격리되어 왔던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바르게 이해되기란 힘들 것이고,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반 대중들에 의해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 장애인에 대해 갖게 되는 인식이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적인 것들이 많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전근대, 근대-현대, 현대-미래의 3단계 발전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익섭, 1988). 먼저 제1단계인 전근대사회에서의 장애인은 불구자로 인식되었으며 사회에서 하층계급으로서의 쓸모없는 또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낙인과 함께 억압받고 학대받는 존재였다. 이 시대에는 건강한 신체적 조건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장애인은 생존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의 부양능력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학대가 결정되었으며 민족이나 종교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살해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강부진, 2011). 제2단계 산업기술화의 영향으로 물질적 풍요가 있던 시기로서 능력을 중요시한 가치관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리가 나타났던 시기였다(이광호, 2011). 이 시기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구성된 산업구조로부터 점차 격리되었다. 장애인들의 주거공간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수용시설이나 특수병원에서 살게 되었으며 ‘장애자’라는 제 2의 계급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박은경, 2005).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사회순응을 요구하게 되었고 일정한 교화적·사회 정책적 시책을 필요로 하게 되어 사회 방위적 보도를 실시하게 하였다(권도용·박희찬·오길승, 1998). 제3단계에서는 사회의 재통합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보는 시각이 전환되는 시기이다(이광호, 2011). 이 시기는 ‘장애’가 재인식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대 국제장애분류를 통해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적, 사회적, 생활중심 개념으로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도 했다(송영욱, 1993). 현재는 장애인을 격리 및 보호하는 형태에서 장애인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 재통합 방향으로의 나아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강부진, 2011).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되어 왔다.

나. 장애인 대한 태도

1) 태도의 개념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를 일컫는 태도는 행위의 근거가 되며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해 학습되며 이러한 행위는 다시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태도는 심리적 속성을 지닌 현상이므로 태도의 개념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의 어느 측면에 중요성을 부과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진다(양홍식, 2005).

Allport(1935)는 태도를 사회적인 대상물에 대하여 반응하기 위한 인간의 심리적 경향이나 준비성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보면 태도는 어떤 유형의 행동을 위한 준비성의 한 조건, 또는 경험을 통하여 형성·조직된 준비성의 정신적 또는 신경적 상태로서, 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물과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에 지시적 또는 역동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혹은 동기유발을 위한 준비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숙경, 2007). 태도를 경험을 통하여 학습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태도란 경

험의 잔재로서 대상물에 대하여 특수한 양태로 반응하도록 만들고 있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경향이다(차배근, 1992). 태도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특유한 지속적 반응의 경향 또는 개인이 관련을 가진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서 경험을 통해 체계화 된 심적, 신경적인 준비 상태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질을 갖는다.(박창호, 1997). 태도는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대상물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양태로서 일관성 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경향이며, 위와 같은 태도의 정의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장애인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태도란 고등학생이 장애아동이라는 대상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는 경험학습요인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 호의적인 양태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배, 2000).

태도의 형성 원리는 첫째, 태도는 신념이 강할수록 지적 요소가 충족된 상태에서 정의적 요소인 흥미가 강할수록 잘 형성된다. 태도는 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가치가 지적 판단에 유관하다면 정적인 흥미가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장애인 이해교육을 실시할 때도 장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소인 흥미가 강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김숙경, 2007). 둘째, 경험의 반복으로 태도는 지속이 되고 안정화 되며 셋째, 계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일 경우 강한 태도를 수반하게 된다(김숙경, 2007). 넷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모방심리로 인하여 모방력이 강하면 강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양홍식, 2005). 다섯째, 감정 수준의 높이에 비례하여 강한 태도를 수반하게 된다(김대수, 1993). 태도는 자아개념이 발달되고 타인과 자신을 구별함을 알기 시작되고 경험을 통해 점차 학습된다. 태도는 학자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신념, 감정 및 행동의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혜숙, 2006). 그러므로 태도에는 세 가지 요소 즉, 인지, 정의, 그리고 행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전보향, 2009). 이러한 관점에서 Rokeach(1970)는 태도를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관한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으로서 개인의 반응양태의 선유경향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석하고 있다(전보향, 2009). 첫째, 태도는 지속적이다. 태도는 그 때 그 때의 행동에 앞서 특정 환경 속에서 구성되었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꾸준히 특정인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태도는 신념의 조직이다. 태도란 것은 그 자체가 성격 속

의 하나의 환원 불가능한 기본적 요소가 아니라 몇 가지의 서로 관련되는 요소들의 집합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론가들 사이에 이의가 없다(김혜숙, 2006). 이러한 집합체 개념으로서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Rokeach(1970)는 이를 신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태도를 이루고 있는 신념에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셋째,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즉, 태도란 특정한 개인의 신념의 조직이거나, 집단, 제도의 신념의 조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나 활동과 같은 상황에 대한 신념의 조직일 수도 있다. 넷째, 태도는 특정반응을 보이려는 성향들의 조직체이다. 여기에서의 반응이란 의견을 구두로 표현하는 행위도 다른 일체의 행위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다(안미애, 2005). 태도는 욕구, 욕망, 갈망이라든지 본성과 같은 행동성향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이다. 그리고 신념의 조직체로서 태도는 특정대상이나 상황에 관한 단일 기질이라기 보다는 상호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기질들의 조직체이다. 태도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기질들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의해서 다 같이 유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태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질들 중에서 어느 것이 유발되는 지는 특정대상을 대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다섯째 태도는 선택적 반응을 유발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태도가 선택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점에서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안윤정, 2007). 태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를 해석해보면 태도의 선택적 반응의 기초를 평가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 평가 속에 인지적, 정의적 요소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태도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즉 인지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서 태도의 반응적 성향의 강도를 특정 하는데 있어서는 반응의 선택적 기준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안미애, 2005).

2) 태도변화의 이론

태도의 구성 요소별로 본 태도변화의 이론을 인지적 접근이론과 감정적 접근이론 및 행동적 접근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양홍식, 2005). 첫째로, 인지적 접근이론은 태도의 인지적 요소를 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의사소통으로 태도의 대상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변화시킴으로서 개인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이론이며 그 예로서 Heider의 균형이론을 들 수 있다. 균형 이론의 기본 전제는 개인의 사고나 행동은 불일치나 불균형한 상태를 해소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질서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김숙경, 2007). 태도 변화를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며,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사고, 소신, 태도, 행동 등에서 나름대로의 균형 유지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인간이 심리적인 불균형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장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될 경우 그 지식을 자신의 행동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균형을 이루려고 할 때 태도는 변화된다(김숙경, 2007). 둘째, 감정적 접근이론이란 개인의 감정을 변화시켜 개인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서 사물에 대한 감정적 느낌의 변화에 따라 사물에 대한 사고와 신념 등이 변화되며 인지적요소를 변화시키면 감정적 느낌까지 변화된다는 이론이다. 감정적 접근 이론에서는 인지적요소와 감정적 요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두 요소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태도가 변화된다고 보며 모의 장애체험으로 장애인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면 장애인에 대한 사고나 인식 및 신념이 바뀐다는 이론이다(김숙경, 2007). 마지막으로 행동적 접근이론은 태도의 행동적 요소를 변화시킴으로서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Bandura의 모델링이론이 있다. 모델링이론에서는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등이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관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모든 학습현상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이 수반되는 결과를 관찰하는 대상 또는 간접경험을 통하여서도 발생한다고 본다(양홍식, 2005). Bandura는 모델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인 강화가 관찰자의 학습과 관련 된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므로 반응의 결과는 다음 학습을 위한 정보 동기유발 및 강화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반응이 긍정적이고 개인이 장애인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면 개인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화, 형성된다고 본다(박창호, 1997).

태도의 구성 요소를 인지적속성과 사회적 속성 및 행동적 속성으로 나누어 볼 때 이들 간의 상호 일관성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속성을 가진 태도는 미리 계획된 교육의 결과로 학습되지만 우연히 학습되는 경우도 있다(김숙경, 2007). 이러한 태도는 항상 수정과정과 재 형성과정을 가지며 아동들은 경험을 통해 사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조기에 습득된 어떤 태도는 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수정 또한 쉽게 되지 않는다.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험으로 인해 긍정적이 되며 장애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가질수록 더욱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양홍식, 2005).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았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결과
이종남(1994)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시설 내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 경험 유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장애인과의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김정배(2000)	청소년 92명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자원봉사 동기가 이타적일 때, 참여시간이 길수록, 자원봉사 내용이 직접봉사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
이초희(2003)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통합교육을 받는 중학생 설문 264명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 여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 유무	일반학생의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양홍식(2005)	거창읍 내 일 반계 고등학생 설문 280명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 여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 유무	고학년이 될수록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
김숙경(2007)	고등학교 1,3학년 각 40명	장애인 대한 봉사활동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자원봉사활동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하만두(2007)	통합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90명	장애인 봉사프로그램 적용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봉사프로그램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최정희(2008)	대학생 설문 120명	서울지역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 여부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장애인에 대한 봉사경험이 있을 경우 태도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김미화(2010)	대학생 설문 356명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 여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 유무	장애인 도우미 활동 경험 이 있고, 활동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장애인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이광호(2011)	대학생 설문 655명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 여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자원봉사활동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임.
이정민(2011)	장애인시설 자원봉사자 212명	장애인 봉사 시간, 봉사 유형, 사전교육 유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장애인 봉사 경험과 봉사 시간과 비례하고, 사전교 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임인화(2015)	여수시 內 G 중학교 남학생 60명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희망 남학생 30명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 유무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장애수용태도 및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

<표 II-1>과 같이 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하자면 장애인 이해 교육 및 체험 및 자원봉사활동(김미화, 2010; 김숙경, 2007;
 김정배, 2000; 이광호, 2011; 임인화, 2015; 이정민, 2011; 이종남, 1994; 이초희,
 2003; 최정희, 2008; 하만두, 2007)으로,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며 이 요인들 중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연구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종남(1994)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장애인에 직접자
 원봉사를 하는 경우에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초희(2003)의 연구에서
 는 일반학생의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양홍식(2005)은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장
 애인 인식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고학년이 될수록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정희(2008)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김미화(2010)은 대학에서 장애 학생에 대해 도우미 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이광호(2011)도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하만두(2007)는 통합교육이 운영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의 실제적인 접촉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배(2000)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장애인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장애인과 관련 있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자원봉사 동기가 이타적일 때, 참여시간이 길수록, 자원 봉사 내용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봉사활동일 때 장애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경(2007)은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정민(2011)은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성인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기간이 클수록, 장애인과 상호작용 활동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전교육을 받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다고 하였다. 임인화(2015)는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장애 수용 태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자원봉사와 관련이 있는 결과를 요약하면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봉사활동 장소가 장애인 관련 복지관이나 시설인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동기가 이타성일 때, 자원봉사 시간이 길수록, 자원봉사 내용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봉사일 때 장애인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긍정적 인식을 위한 제언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장애인 시설물에서의 봉사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제주시 지역에 위치하고 통합 학급을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 연구 도구, 연구 절차, 자료 처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에 30개의 중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중 14개 학교에서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14개 학교 중에 제주시를 동부, 중부,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2군데씩 총 6개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 09. 02 ~ 2018. 09. 24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남녀 공학인 4개의 중학교는 각 학년별로 남학생반 1개 학급, 여학생반 1개 학급씩 조사하였고, 여자중학교와 남자중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1개 학급씩 조사하였다. 학급별로 학생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28명~30명 정도로 총 87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미회수 및 응답이 불완전한 57부를 제외한 813부(회수율-남 94%, 여 93%)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표 Ⅲ-1> 자료 수집 현황

구분	표집수		수집수		회수율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학년	1학년	145	145	135	93 %	93 %
	2학년	145	145	137	94 %	94 %
	3학년	145	145	135	93 %	93 %
계	435	435	407	406	94 %	93 %

가.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장애인 관련 자원 봉사활동 경험이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생 8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407명(50.1%), 여자는 406명(49.9%)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270명(33.2%), 2학년은 273명(33.6%), 3학년이 270명(33.2%)로 나타났다. 장애인 대상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학생이 546명(67.2%)이었고, 경험이 있는 학생은 267명(32.8%)으로 조사되었다.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 장애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수반(식사돕기, 말동무 등)으로 한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139명(52.3%)으로 그 외 127명(47.7%)의 학생들은 간접적인 접촉을 수반(시설청소, 자료정리 등)으로 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봉사활동을 한 경우 장애 대상자의 연령이 어린 연령은 16명(11.5%), 초·중·고 학생인 경우는 65명(46.8%)이었고, 노인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58명(41.7%)으로 조사되었다.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주된 동기를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 38명(14.3%), 본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참여한 경우 16명(6.0%),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35명(13.2%), 학년별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97명(36.5%), 자발적인 선행을 하기 위해 31명(11.7%), 어떤 봉사활동인지 잘 모르고 친구나 가족 등을 따라간 경우는 45명(16.9%)으로 나타났고 그 외 기타 4명(1.5%)은 인터뷰나 장애인 봉사활동 체험 수기를 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살펴보면 없음은 15.4%(41명), 1시간미만은 6.0%(16명), 1~2시간미만은 17.3%(46명), 2~3시간미만은 18.8%(50명), 3~4시간미만은 18.8%(50명), 4시간이상 23.7%(63명)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자원 봉사교육을 살펴보면,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은 499명(61.4%)이고,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314명(38.6%)으로 나타났고,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지난 1년간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횟수를 조사했을 때, 교육 횟수 없음이 37명(11.8%), 1회는 107명(34.1%), 2회는 124명(39.5%), 3회 이상은 46명(14.6%)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의 경험과 자원 봉사 교육을 살펴보면, 봉사활동과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는 128명(15.7%), 봉사활동 경험만 있는 경우는 139명(17.1%), 봉사활동 경험은 없지만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186명(22.9%), 봉사활동을 한 경험도 없고,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학생은 360명(44.3%)으로 나타났다.

<표 III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측값 제외)

변수	항목	표본수 (명)	구성비율 %
성별	남자	407	50.1
	여자	406	49.9
학년	1학년	270	33.2
	2학년	273	33.6
	3학년	270	33.2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	없음	546	67.2
	있음	267	32.8
봉사활동 종류	직접적접촉	139	52.3
	간접적접촉	127	47.7
직접적 접촉을 수반하는 봉사활동을 한 대상자 연령	어린연령	16	11.5
	초중고	65	46.8
	성인	58	41.7
봉사활동의 동기	주변의 추천	38	14.3
	성장과 발달을 위해	16	6.0
	새로운 경험을 위해	35	13.2
	봉사시간을 채우려고	97	36.5
	자발적인 선행	31	11.7
	친구나 가족을 따라	45	16.9
	기타	4	1.4
지난 1년간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시간	없음	41	15.4
	1시간미만	16	6.0
	1~2시간미만	46	17.3
	2~3시간미만	50	18.8
	3~4시간미만	50	18.8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교육 경험	없음	499	61.4
	있음	314	38.6
지난 1년간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교육 횟수	없음	37	11.8
	1회	107	34.1
	2회	124	39.5
	3회이상	46	14.6
봉사활동 X 자원봉사교육	경험유_교육유	128	15.7
	경험유_교육무	139	17.1
	경험무_교육유	186	22.9
	경험무_교육무	360	44.3
합 계		813	100

2. 분석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도구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들 중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경험 및 교육의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정희(2009), 전보향(2009), 양홍식(2004) 논문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9문항,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20문항, 통합교육에 관한 5문항,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4문항으로 총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p>*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 예</p> <p>: 목욕시키기, 머리감기기, 식사돕기, 말동무, 함께 운동하기, 휠체어 이용자와 산책, 프로그램 진행보조 등</p> <p>* 간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 예</p> <p>: 사무보조, 자료정리, 빨래하기, 청소, 환경미화, 캠페인 활동 등</p>

가. 신뢰도 분석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신뢰도 검증(Cronbach's 알파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93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교육태도에 대한 신뢰도의 값은 0.80이고 봉사활동 태도에 대한 신뢰도의 값은 0.85로 두 변수 또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I-3> 신뢰도 검증

변수명	문항수	Cronbach`s Alpha
장애인인식	20	.93
통합교육태도	5	.80
봉사활동태도	5	.85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분석을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성별, 자원봉사경험 유무 및 자원봉사의 종류, 자원봉사 교육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년, 직접 접촉한 봉사활동의 장애인 대상자 연령, 봉사활동의 동기, 봉사활동 시간 및 자원 봉사 교육 시간, 봉사활동의 경험과 교육의 관계에 따른 장애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8.0*을 활용하였다.

가. 기술통계분석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인식을 살펴보면 평균이 3.75, 표준편차가 0.69로 나타났다. 통합교육태도는 평균이 3.29, 표준편차가 0.76이었으며 봉사활동태도는 평균이 3.78, 표준편차가 0.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정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한 것으로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에 대한 대칭적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 좌측에 몰려있고, 음의 왜도는 평균의 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대한 비대칭적 분포를 이룬다. 왜도는 절댓값 3이상, 첨도는 절댓값 7이상일 경우 자료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SPSS*에서 첨도 값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된 첨도지수 값 3을 제외한 결과로 해석할 때는 3을 더해서 해석한다. 이 연구의 응답자료 정규성 검토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와 첨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항목별 기술통계분석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장애인인식	813	1	5	3.75	.69	-.27	-.60
통합교육태도	813	1	5	3.29	.76	-.21	.40
봉사활동태도	813	1	5	3.78	.72	-.56	.80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중학생들이 장애인 인식과 수용 태도의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중학생들의 장애인 인식과 수용 태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장애인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들 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고, 통합교육 및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면에서는, 남자의 평균은 3.61, 여자의 평균은 3.9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6.1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태도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은 3.16, 여자의 평균은 3.42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4.8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태도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은 3.63, 여자의 평균은 3.9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6.11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 성별에 따른 비교

변인	남자		여자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인식	3.61	.70	3.90	.66	-6.16	.000**
통합교육태도	3.16	.81	3.42	.67	-4.89	.000**
봉사활동태도	3.63	.77	3.93	.62	-6.11	.000**

** $p < 0.01$

나. 학년에 따른 중학생들의 장애인 인식과 수용 태도의 차이

학년에 따라서 변수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이 결과 학년에 따라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 인식과 태도에서는 1학년(a)의 평균이 3.86, 2학년(b)은 3.78, 3학년(c)은 3.61, 그리고, 전체는 3.75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9.84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장애인인식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태도를 살펴보면, 1학년(a)의 평균이 3.41이고, 2학년(b)은 3.31, 3학년(c)은 3.15, 그리고, 전체는 3.29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8.1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합교육태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태도를 살펴보면, 1학년(a)의 평균이 3.87이고, 2학년(b)은 3.80, 3학년(c)은 3.67, 그리고, 전체는 3.78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5.84이고 유의확률이 0.003이므로 봉사활동태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저학년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고,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학년에 따른 비교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장애인인식	1학년(a)	3.86	.66	9.84	.000**	a,b>c
	2학년(b)	3.78	.67			
	3학년(c)	3.61	.72			
	전체	3.75	.69			
통합교육태도	1학년(a)	3.41	.75	8.13	.000**	a>c
	2학년(b)	3.31	.68			
	3학년(c)	3.15	.81			
	전체	3.29	.76			
봉사활동태도	1학년(a)	3.87	.68	5.84	.003**	a>c
	2학년(b)	3.80	.66			
	3학년(c)	3.67	.78			
	전체	3.78	.72			

** $p < 0.01$

2.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관련 특성에 따른 중학생들의 장애인 인식과 수용 태도의 차이

가.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를 위해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유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면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평균은 3.74,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은 3.78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80이고 유의확률이 0.42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통합교육태도를 살펴보면,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 평균은 3.24,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은 3.39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2.77이고 유의확률이 0.00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태도를 살펴보면,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평균은 3.72,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은 3.90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3.34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의 유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큰 영향이 없고,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변인	없음		있음		<i>t</i>	<i>p</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인식	3.74	.62	3.78	.82	-.80	.424
통합교육태도	3.24	.69	3.39	.87	-2.77	.006**
봉사활동태도	3.72	.71	3.90	.71	-3.34	.001**

***p*<0.01

나. 자원 봉사활동 종류에 따른 비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종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조사하고, 장애인과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과 간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에 따른 비교를 위해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자원봉사활동 종류(직접적 접촉, 간접적 접촉)에 따라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면에서,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76, 간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평균은 3.81로 나타났으나 검정통계량의 *t* 값이 -.55이고 유의확률이 0.58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통합교육태도를 살펴보면,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41, 간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평균은 3.37로 나타났으나 검정통계량의 *t* 값이 0.39이고 유의확률이 0.69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봉사활동태도를 살펴보면,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94, 간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평균은 3.86으로 나타났으나 검정통계량의 *t* 값이 0.98이고 유의확률이 0.32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장애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봉사활동인지, 간접적인 접촉을 하는 봉사활동인지 여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종류에 따른 비교

변인	직접적접촉		간접적접촉		<i>t</i>	<i>p</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인식	3.76	.83	3.81	.80	-.55	.582
통합교육태도	3.41	.96	3.37	.76	.39	.699
봉사활동태도	3.94	.73	3.86	.70	.98	.329

다. 장애인 대상자 연령에 따른 차이 비교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대상자의 연령을 어린 연령(유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성인(노인 포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이 연령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봉사활동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는 어린연령(a)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39이고, 초중고등학생(b) 또래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68이며, 노인을 포함한 성인(c)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95, 그리고 전체 평균은 3.7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3.48이고 유의확률이 0.03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어린연령(a)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2.99이고, 초중고등학생(b) 또래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29, 노인을 포함한 성인(c)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67, 그리고 전체 평균은 3.41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4.38이고 유의확률이 0.01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에 태도를 살펴보면 어린연령(a)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56이고, 초중고등학생(b)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은 3.84, 성인(c)은 4.16, 그리고, 전체는 3.94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5.79이고 유의확률이 0.00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봉사활동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고,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 봉사활동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비교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장애인인식	어린연령(a)	3.39	.84	3.48	.034*	c>a
	초중고(b)	3.68	.82			
	성인(c)	3.95	.79			
	전체	3.76	.83			
통합교육 태도	어린연령(a)	2.99	.69	4.38	.014*	c>a
	초중고(b)	3.29	1.02			
	성인(c)	3.67	.89			
	전체	3.41	.96			
봉사활동 태도	어린연령(a)	3.56	.72	5.79	.004**	c>a
	초중고(b)	3.84	.74			
	성인(c)	4.16	.67			
	전체	3.94	.73			

*p<0.05, **p<0.01

라. 자원봉사활동 동기에 따른 비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주된 동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조사하고, 동기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

- ①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 ②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 ③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 ④ 학년별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 ⑤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 ⑥ 어떤 봉사활동인지 정확히 모르고 친구나 가족 등을 따라
- ⑦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의 추천(a)으로 참여하게 된 학생의 평균이 3.66이고, 본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b)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4.08,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c)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3.80, 학년별 봉사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d)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3.69, 자발적인 선행(e)을 위해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4.36이었으며, 정확히 어떤 봉사활동인지 모르고 친구나 가족 등을 따라가서(f) 참여하게 된 경우의 평균은 3.54, 기타(g)의 평균은 4.23, 그리고 전체 평균은 3.79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4.51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장애인인식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태도를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의 추천(a)으로 참여하게 된 학생의 평균이 3.19이고, 본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b)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3.74,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c)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3.66, 학년별 봉사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d)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3.25, 자발적인 선행(e)을 위해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3.97이었으며, 정확히 어떤 봉사활동인지 모르고 친구나 가족 등을 따라가서(f) 참여하게 된 경우의 평균은 3.11, 기타(g)의 평균은 3.65, 그리고 전체 평균은 3.3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5.32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합교육태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태도를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의 추천(a)으로 참여하게 된 학생의 평균이 3.78이고, 본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b)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3.99,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c)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4.18, 학년별 봉사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d)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3.78, 자발적인 선행(e)을 위해 참여한 경우의 평균은 4.26이었으며, 정확히 어떤 봉사활동인지 모르고 친구나 가족 등을 따라가서(f) 참여하게 된 경우의 평균은 3.75, 기타(g)의 평균은 4.20, 그리고 전체 평균은 3.9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3.56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봉사활동태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선행(e)을 위해, 본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b),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c) 등과 같이 자신의 의지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어떤 봉사활동인지도 모르고 친구나 가족 등을 따라가서(f) 봉사활동을 경험했거나 학년별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d) 등과 같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고,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비교

변수	항목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검증
장애 인 인식	주변 사람들의 추천(a)	3.66	.87	4.51	.000**	e>f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b)	4.08	.84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c)	3.80	.77			
	학년별 봉사시간을 위해(d)	3.69	.83			
	자발적인 선행(e)	4.36	.48			
	친구나 가족을 따라(f)	3.54	.77			
	기타(g)	4.23	.40			
	전체	3.79	.81			
통합 교육 태도	주변 사람들의 추천(a)	3.19	.98	5.32	.000**	e>f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b)	3.74	.58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c)	3.66	.76			
	학년별 봉사시간을 위해(d)	3.25	.81			
	자발적인 선행(e)	3.97	.62			
	친구나 가족을 따라(f)	3.11	.97			
	기타(g)	3.65	.84			
	전체	3.39	.87			
봉사 활동 태도	주변 사람들의 추천(a)	3.78	.66	3.56	.002**	e>f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b)	3.99	.65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c)	4.18	.51			
	학년별 봉사시간을 위해(d)	3.78	.68			
	자발적인 선행(e)	4.26	.55			
	친구나 가족을 따라(f)	3.75	.94			
	기타(g)	4.20	.49			
	전체	3.90	.72			

**p<0.01

마. 지난 1년간 자원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비교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변수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이 결과 지난 1년간 봉사활동을 한 시간에 따라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a)의 평균이 3.52이고, 1시간미만(b)은 3.30, 1~2시간미만(c)은 3.38, 2~3시간미만(d)은 3.71, 3~4시간미만(e)은 4.21, 4시간 이상(f)은 4.10, 그리고, 전체 평균은 3.79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10.6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태도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a)의 평균이 3.11이고, 1시간미만(b)은 3.26, 1~2시간미만(c)은 2.90, 2~3시간미만(d)은 3.32, 3~4시간미만(e)은 3.75, 4시간 이상(f)은 3.74였으며 전체 평균은 3.39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8.6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태도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a)의 평균이 3.71이고, 1시간미만(b)은 4.04, 1~2시간미만(c)은 3.70, 2~3시간미만(d)은 3.92, 3~4시간미만(e)은 3.95, 4시간 이상(f)은 4.08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3.9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2.38이고 유의확률이 0.03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이라는 조건이 있어 봉사활동 시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비례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활동 시간이 없거나 1~2시간 미만인 학생들보다 3~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비교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장애인 인식	없음(a)	3.52	.76	10.66	.000**	e>a, f>b,c
	1시간미만(b)	3.30	.76			
	1~2시간미만(c)	3.38	.85			
	2~3시간미만(d)	3.71	.71			
	3~4시간미만(e)	4.21	.69			
	4시간이상(f)	4.10	.74			
	전체	3.79	.81			
통합 교육 태도	없음(a)	3.11	.67	8.66	.000**	e>a, f>c
	1시간미만(b)	3.26	.80			
	1~2시간미만(c)	2.90	.98			
	2~3시간미만(d)	3.32	.74			
	3~4시간미만(e)	3.75	.89			
	4시간이상(f)	3.74	.75			
	전체	3.39	.87			
봉사 활동 태도	없음(a)	3.71	.60	2.38	.039*	f>c
	1시간미만(b)	4.04	.71			
	1~2시간미만(c)	3.70	.92			
	2~3시간미만(d)	3.92	.61			
	3~4시간미만(e)	3.95	.74			
	4시간이상(f)	4.08	.63			
	전체	3.90	.72			

*p<0.05, **p<0.01

바. 장애인 대상 자원 봉사활동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비교

장애인 대상 자원 봉사활동 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를 위해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자원 봉사활동 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은 3.50,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은 4.15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14.81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은 3.06,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은 3.65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11.8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은 3.64,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은 4.0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7.05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대상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좋고,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8> 자원봉사활동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비교

변인	없음		있음		<i>t</i>	<i>p</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인식	3.50	.65	4.15	.56	-14.81	.000**
통합교육태도	3.06	.73	3.65	.65	-11.86	.000**
봉사활동태도	3.64	.74	4.00	.61	-7.05	.000**

***p*<0.01

사. 지난 1년간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른 비교

지난 1년간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른 변수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이 결과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a)의 평균 3.76이고, 1회 교육을 받은 경우(b)는 4.05, 2회 교육을 받은 경우(c)는 4.30,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d)의 평균은 4.30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4.15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12.5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태도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a)의 평균이 3.27이고, 1회 교육을 받은 경우(b)는 3.59, 2회 교육을 받은 경우(c)는 3.79,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d)의 평균은 3.75였으며 전체 평균은 3.65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7.3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태도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a)의 평균이 3.64이고, 1회 교육을 받은 경우(b)는 3.96, 2회 교육을 받은 경우(c)는 4.10,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d)의 평균은 4.09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4.0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5.79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이라는 조건이 있어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활동 교육을 받은 횟수가 없거나 1회 미만인 학생들보다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지난 1년간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교육 횟수에 따른 비교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장애인 인식	없음(a)	3.76	.67	12.56	.000**	b,c,d>a
	1회(b)	4.05	.51			
	2회(c)	4.30	.50			
	3회이상(d)	4.30	.51			
	전체	4.15	.56			
통합 교육 태도	없음(a)	3.27	.78	7.33	.000**	c,d>a
	1회(b)	3.59	.62			
	2회(c)	3.79	.58			
	3회이상(d)	3.75	.66			
	전체	3.65	.65			
봉사 활동 태도	없음(a)	3.64	.82	5.79	.001**	b,c,d>a
	1회(b)	3.96	.64			
	2회(c)	4.10	.52			
	3회이상(d)	4.09	.52			
	전체	4.00	.62			

** $p < 0.01$

(1회 : 교육시간 약 20-30분정도)

아.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자원봉사활동 교육의 유무에 따른 비교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와 자원봉사활동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변수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이 결과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자원봉사활동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자원 봉사활동 경험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둘 다 있는 학생들(a)의 평균이 4.23이고, 봉사활동 경험은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b)의 평균은 3.36, 봉사활동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c)의 평균은 4.10, 봉사활동을 한 적도 없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는 학생들(d)의 평균은 3.55였으며, 전체 평균은 3.7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값이 78.70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자원 봉사활동 경험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둘 다 있는 학생들(a)의 평균이 3.81이고, 봉사활동 경험은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b)의 평균은 3.01, 봉사활동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c)의 평균은 3.55, 봉사활동을 한 적도 없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는 학생들(d)의 평균은 3.08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3.29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51.22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자원 봉사활동 경험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둘 다 있는 학생들(a)의 평균이 4.08이고, 봉사활동 경험은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b)의 평균은 3.73, 봉사활동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c)의 평균은 3.94, 봉사활동을 한 적도 없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는 학생들(d)의 평균은 3.61이었고, 전체 평균은 3.78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18.75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와 자원봉사활동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비교를 해보았을 때,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 모두 있는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고 통합교육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이었다. 그 다음은 봉사활동 경험은 없으나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인식이 높았고,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교육과 봉사활동 모두 경험한 적이 없는 학생들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표 IV-10>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자원봉사활동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비교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
장애인 인식	경험유_교육유(a)	4.23	.65	78.70	.000**	c,a>d>b
	경험유_교육무(b)	3.36	.73			
	경험무_교육유(c)	4.10	.48			
	경험무_교육무(d)	3.55	.60			
	전체	3.75	.69			
통합 교육 태도	경험유_교육유(a)	3.81	.72	51.22	.000**	a>c>d,b
	경험유_교육무(b)	3.01	.82			
	경험무_교육유(c)	3.55	.57			
	경험무_교육무(d)	3.08	.69			
	전체	3.29	.76			
봉사 활동 태도	경험유_교육유(a)	4.08	.59	18.75	.000**	a>b, c>d
	경험유_교육무(b)	3.73	.78			
	경험무_교육유(c)	3.94	.63			
	경험무_교육무(d)	3.61	.72			
	전체	3.78	.72			

** $p < 0.01$

V.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일반 중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물과 관련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활동 경험 유무와는 상관없이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과에서 성별은 허영미(2004)의 연구결과에 나온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학년 간에 차이는 양홍식(2005)의 연구결과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보다 긍정적이며 우호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저학년 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 및 관련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과에서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경험 유무(이초희, 2003; 양홍식, 2005; 김숙경, 2007; 최정희, 2008; 김미화, 2010; 이광호, 2011), 자원봉사활동의 동기가 이타적일수록(김정배, 2000; 임인화, 2015), 자원봉사활동기간이 길수록(김정배, 2000; 이정민, 2011),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을 받을수록(김숙경, 2007; 이정민, 2011)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에 일치한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에서 직·간접적인 접촉이 수반되는 활동(이종남, 1994; 김정배, 2000; 하만두, 2007; 이정민, 2011)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얻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 대상자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와 자원봉사활동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비교를 해보았을 때,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 모두 있는 학생, 봉사활동 경험은 없으나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 봉사활동 모두 경험한 적이 없는 학생,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 순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이타적인 동기와 더불어 활동에 필요한 교육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장애관련 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과 동시에 사전·사후 교육을 통하면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리라 생각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성별, 학년,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의 경험 및 그와 관련된 교육 경험의 유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제주도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학급을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 8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수용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등 3개의 하위 영역별 문항에 대한 의견을 설문으로 조사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수용태도가 긍정적이고 통합교육에 대해 찬성하며,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인 스스로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로는 저학년일 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가 긍정적이고, 통합교육에 대해 찬성하며, 봉사활동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어릴 때부터 받아들인 도덕적인 교육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에 반해 고학년이 될수록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주로 슬픔이나 불안감, 낮은 자기자존감 등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에 따른 장애인 인식 및 수용 태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단순히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봉사활동의 경험과 더불어 관련 봉사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고 수용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만 참여한 경우의 학생들은 봉사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 비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종종 장애인들의 낮은 대처능력 또는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의 유무는 장애인 인식 및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졌다.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고, 우호적인 것으로 드러나 자원봉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참여 시간이나 자원봉사교육의 횟수 모두 장애인 인식 및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봉사시간이 1시간씩 혹은 교육 횟수가 1회씩 증가할 때 마다 비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활동 시간이 없거나 1~2시간 미만인 학생들보다 3~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교육 횟수 1회 미만인 학생들에 비해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수용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사활동 시간이 많아지거나 관련 교육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활동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합교육 및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봉사활동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고,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연령일수록 선천적인 장애가 많은 반면 노인을 포함한 성인의 경우 사고나 노화로 인한 원인으로 거리감이 작아,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따라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통합교육과 봉사활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나, 본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혹은 새로운 경험과 같이 자신의 의지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어떤 봉사활동인지 모르고 친구나 가족 등을 따라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거나 학년별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유경(2016)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인이 아닌 중학생들도 자발적인 동기를 가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을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수반하는 활동과 장애인 시설 청소와 같이 간접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나눌 때 봉사활동의 종류에 따라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수용 태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제언

본 연구는 제주시에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다른 시도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 연구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질문지법에 의존하여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장애인 인식에 대한 중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설문지가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가 참고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것으로 연구방법에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진실성에 의존하여 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가 설정했던 연구방법 및 결과들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중학생, 청소년들에 대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연구대상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중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조사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에 있어 관련 교육의 유무가 장애인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도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 및 교육 외에도 일반 학교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태도가 통합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교사들에게 특수교육 관련 연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교적 단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다 장기간의 실행을 통한 결과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장애인 인식 및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부진(2011).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요소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석주(2008).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수균·조흥중(2003). **장애이해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강영실(2003).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출판.
- 강영걸(1999). **조직이론**, 지구촌.
- 고선정.(2001). 생활시설 정신지체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써의 Pre-Group Home 운영 사례연구: J재활원 사례중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재복(1992).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식과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도용(1995). **장애인 재활복지: 체계와 실태**, 서울: 홍익재.
- (1998). **현대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 김남선(2001). 청소년 교육론의 의미와 성격. 김남선 외(편). **청소년 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남순(2001). 한국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통합교육 운용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대수(1993). **태도형성론: 마음(가치,태도)의 교육**. 대구:우신출판사.
- 김민선(2002).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화(2010). 대학의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삼섭(1996). **장애아 통합교육**. 서울: 양서원.
- 김성봉(2004). 봉사학습과 교육과정 탐구 영역의 확장, **교육과정 연구**, 22(3). 229~249.
- 김숙경(2007). 일반 고등학생의 장애인대상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석(2000). 주거형태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득·유동철(200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p.75.
- 김은영(2001).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기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배(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05). 2005 청소년봉사활동백서,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김태성(2005). 청소년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 전북 익산시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06). 통합학급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 분석,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규(2002). 활동중심 접근과 이해중심 접근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 태도개선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동팔(1996). 장애인의 이미지형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종사자 인식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은식(1990). **장애자의 사회적 재활**,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민은식선생유고집, 231~232.
- 민은화(2008). 제주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실태와 인정·지원 기대수준, 탐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2005).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경험유무에 따른 비교,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1997). 산업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수경,곽지영(2011).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과 관련요인, **재활복지**, 15(4), 264,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 변순옥(2001).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희(1994). 일반학급의 비장애학생과 특수학급의 장애학생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일 분석: 통합교육을 통한 비장애학생의 긍정적 경험, 한국특수교육학회편, **특수교육총론**, 제 11권.
- 박창호(1997). **현대심리학 입문**, 서울: 정민사.
- 박태영, 손정일, 이해령(2000). 지역사회복지에서 정상화의 이론적 함의, **사회복지개발연구** 6(2), 192-201,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박현숙(1997). 학습장애청소년의 전이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교육과학연구**, 26, 81~100.
- 변소현(1998). 장애인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p193~195
- 보건복지부(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8.
- 송영옥(1993). **장애인의 인권**, 한국법학원.
- 송수영(2001). 장애인과의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재(2003). 교회장애인부 활동이 일반 교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미애(2005).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도 비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윤정(2007). 영상자료와 읽기자료에 따른 일반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생활태도 변화,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홍식(2004). 봉사활동경험 유무에 따른 고등학생의 장애인식 태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지용(2002). 청소년 봉사활동 반성 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2011).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옥(2005). 중학생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1990). 한국장애자 문제의 이해, 현대사회의 장애인복지, 지역지도자 교육 자료집, 서울특별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1998). 장애인 복지수준평가/ 장애통합지수의 개발, 새정부의 전략모색, 제 6회 재할 심포지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이순선(2000). 장애인시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현, 박은혜(1998). **특수아동교육**, 일반학급 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지침서, 서울: 학지사.
- 이소현(1996).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 일반학급교사들을 위한 제언, **이화특수교육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종남(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2). 장애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초희(2003). 중학교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학범(2000). 장애인에 대한 인식 태도 연구: 서울시 강서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인화(2015).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이 일반중학생의 장애수용태도 및 또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상열(2007). 장애인 시설 봉사·체험활동 유무에 따른 일반 중학생의 장애 수용 태도 비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애인복지통합모형연구모임(1996).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경향, 서울대학교 사회사업교실 산하 세미나팀, pp2.
- 정선화(1993).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2002). 봉사활동365일.
- _____ (2003). 학생봉사활동의 올바른 이해와 지도, p.37~69.
- 정예라(2006).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5). “청소년 봉사학습의 교육적 의의”, 2005 청소년봉사활동백서. p.33~37.
- 조휘일(199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실천과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_____ (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홍익재.

- 전보향(2009).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일반 중학생의 장애 수용 태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경수(2000). **한국의 청소년정책**. 서울: 홍익제.
- 차배근(1992). **태도변용이론**. 서울: 도서출판 나남.
- 최미영(2003). 사회적 낙인이 화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희(2008). 자원봉사와 대중매체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만두(2007). 장애 이해 프로그램 적용이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 영상자료 활용과 봉사활동,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영미(2004). 장애인 시설 집단 봉사활동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재(2004). 스포츠참여가 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C. Murcjson(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ss.: Clark Unversity Press.
- Claus, J., & Ogden, C. (2001). An empowering, transformative approach to service. In J. Claus & C. Ogden(Eds.), *Service learning for youth empowerment and social change*. New York : Peter Long Publishing.
- Conrad, D., & Hedin, D. (1989).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and Programs*. Madiso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cales, P., & Blyth, D. (1997). “Effcets of Service-Learning on youth: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Generator*, 17, 6-8.
- Taylor, S. J., & Bogdan . R. (1990). *Quality of Life and the Individual's Perspective, Quality of Life : Perspectives and issues*, edited by Schalock, R. L. AAMR.
- Wade, R. C., & Saxe, P. W. (1996). Community service-learning in the social studies: Historical root, empirical evidence, critical issue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24(4). 331-359.

부록.

설문지

청소년의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이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시 지역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시 중학생들의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순수한 학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문항을 읽어보시고 평소의 생각을 솔직하고 진실 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지도교수 : 김정연

연구자 : 김병진

I. 다음 항목은 학생 자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각각 V표를 해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4번부터 응답하세요) ② 있다(3-1번부터 응답하세요)

3-1. 있다면 다음 중, 학생이 한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었나요?

- ①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3-2번부터 응답하세요)
- ② 간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3-3번부터 응답하세요)

***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 예**
 : 목욕시키기, 머리감기기, 식사돕기, 말동무, 함께 운동하기, 휠체어 이용자와 산책, 프로그램 진행보조 등

*** 간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 예**
 : 사무보조, 자료정리, 빨래하기, 청소, 환경미화, 캠페인 활동 등

3-2. 직접적 접촉이 수반되는 봉사활동을 한 대상자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어린 연령(유아, 유치원) ② 초중고 학생 ③ 성인(노인포함)

3-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 ②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 ③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 ④ 학년별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 ⑤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 ⑥ 어떤 봉사활동인지 정확히 모르고 친구나 가족 등을 따라
- ⑦ 기타(_____)

3-4. 지난 1년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전혀없다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2시간 미만
- ④ 2시간-3시간 미만 ⑤ 3시간-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

4.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뒷장 표에 응답하세요) ② 있다(4-1번부터 응답하세요)

4-1. 지난 1년간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1회 : 교육시간 약 20-30분정도)

- ① 전혀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이상

I.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장애인은 늘 지지분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장애학생과 같은 조가 되면 우리 조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3.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팔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보면 언젠가 나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진다.					
5. 장애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일반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 경우가 많다.					
6. 내가 장애인이 되면 사람들 만나는 일을 회피하거나 꺼릴 것이다.					
7. 장애인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8. 장애인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옆에서 도와주어야 공부할 수 있다.					
9. 장애인들은 대부분 자기 고집이 강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10. 장애인은 의존성이 높아서 늘 도움을 바라므로 부담스럽다.					
11. 보통 장애인은 일반 학생들보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					
12. 장애인은 일을 하기 원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I.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장애인도 나를 도와줄 수 있다.					
14. 장애인들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할 능력이 있다.					
15. 장애가 있는 학생일수록 학급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16. 장애인과 같은 반이 되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까봐 불안하다.					
17. 장애인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장애인의 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불쾌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스럽다.					
18. 장애학생을 돕기는 하겠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19. 수업 중에 장애학생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되면 짜증날 것이다.					
20. 장애인의 의수, 목발, 휠체어 등을 보면 무섭다는 느낌이 든다.					

II.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학생은 장애아동만을 위한 특수학교에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좋다.					
2. 일반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한 장애학생들이 향후 사회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3. 장애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것에 찬성한다.					
4. 장애 학생과 통합되어 공부한다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5. 장애 학생과 같이 공부한다면 일반 학생들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은 장애 학생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봉사활동이 장애인 친구와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5. 기회가 있다면, 장애인에 위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